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라!

태생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인데다가 성공, 승리라는 용어가 너무 공격적, 이기적, 탐욕적으로 들려서 자주 거론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섭리의 한 과정이다. 이길 때가 있으면 지는 때도 있다. 저 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등. 나는 이기려고 기 쓰고 경쟁에 몰두하는 행동을 천박, 야만, 무식하다고 여기는 사고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 한번 잘못 밟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가 난다. 영적인 상처는 물론이요, 몸이나 내면에도 깊은 상흔이 남는다. 영적 지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문화가 가져오는 가공할 만한 혼란의 쓰나미는 신앙인이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성도(聖徒)들에게 부패한 세계관이 마구 접근해온다. 어느 때는 거의 우리를 삼킬 지경으로 파도친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때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창 3:6) 먹거리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우리는 눈이 휘둥그래진다. 조금만 값을 치루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이다. 이럴 때 분별력이 발동되려면, 미혹에 발 담그지 않으려면, 저기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 내려면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져야 한다. 이제는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전쟁에서 질 수는 없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믿음의 성공이다.

시험하는 사탄에 대해 할 말은 오직 이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 4:7)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사탄의 존재는 예측 불가하다. 구원의 주님을 유혹할 정도로 가증스런 힘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맨손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는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비록 사탄의 패배는 정해져 있으나, 죄와 의 사이에 거하는 우리는 일상에서 유혹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권면하신다. 말씀에 굳게 서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 전도서 기자가 탄식하듯 우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잡으려는 것은 뜰구름이나 안개 같은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씩 나아갈 때, 승리는 보장된다.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롬 8:37).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믿음의 동지들이여, 오늘도 기도로 함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We shall overcome!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